

현장스케치

정부는 몰골이 FTA

한·호주

FTA공화국! 정녕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한-호주/뉴질랜드 FTA 중단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

한미FTA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

허울뿐인 한-호주·뉴질랜드 FTA 공청회 현장

또 한번 문지마 FTA에 열을 올리는 정부·여당의 졸속적 행태가 벌어졌다.

지난 1월 16일(금)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한-호주·뉴질랜드 FTA 공청회가 열렸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둘러 처리하느라 빈축을 산지도 며칠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우리협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나 이날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한-호주·뉴질랜드 FTA로 예상되는 피해품목 단체들과의 일련의 논의과정은 생략된 채 외교부의 일방적 통고로 열리게 되어 농축산단체들의 원성이 더했다.

외교통상부 박호성 FTA 교섭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무역협회 측의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 발표가 있었던 이날 공청회에서는 온통 FTA 추진의 당위성 일색이었다. 그러나 패널토의로 유일하게 농축산업의 입장을 개진한 농경연 최세균 선임연구원의 순서가 끝난 이후, 한-호주·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 패널의 발언 도중, 공청회 토의 좌장의 제지를 거부하고 단상으로 올라간 협회 이승호 회장은 방청객을 향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승호 협회장은 "지금껏 정부는 FTA를 추진 체결하는 가운데, 단 한번도 최대의 피해산업 부문인 농축산업에 대해 어떠한 대책마련도 없이 강행 일변이었다"며, "이날 공청회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더 이상의 농축산업 말할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외교부 및 무역협회 측의 보안요원들이 이승호 회장의 발언을 막기 위해 음향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이승호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실무자들을 강제 퇴장시킴으로서 공론화보다는 FTA 추진에 연연하는 정부의 행태만을 재삼 확인시켰다. 형식만 공청회일뿐 눈과 귀를 막은 행위였다.

한편 이에 앞서 한·미 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 대표자들은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적인 FTA 추진 중단을 촉구하였다. (☎)



▲ 공청회 도중 농축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승호 협회장



◀ 주최측에서는 배치한 보안요원들을 통해 이승호 협회장 등을 공청회장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스크림을 짜 입장조차 차단했다.